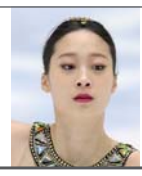

피겨 간판 유영, 세계선수권 선발대회 쇼트 1위

피겨 여자 싱글 간판 유영(17·수리고)이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 획득에 한발 다가섰다. 유영은 25일 제75회 전국 남녀 피겨 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겸 2021 피겨스케이팅 세계 선수권대회 파견선수 선발전 쇼트프로그램에서 69.87점을 받아 선두에 올랐다.



# 추신수 품은 신세계, 팀 홈런 신세계 열까

**최정·로맥·최주환·한유섬 모두 거포**
**2번부터 6번까지 30개씩 이상 가능**
**2017년 SK 최다 기록 234개 경신 기대**

추신수

최정

로맥

최주환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인수한 프로야구 SK 와이번스는 2018년 홈런의 힘으로 KBO리그 한국시리즈 정상의 자리에 섰다.

SK는 당시 한 시즌 팀 홈런 233개를 날렸다. 이 부문 압도적인 1위였다. 전해인 2017년엔 KBO리그 사상 최다인 한 시즌 팀 홈런 234개를 기록했다.

SK는 한국시리즈 우승 뒤에도 장타력에 꾸준히 공을 들였다.

홈구장인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이 다른 구장보다 작다는 이점을 활용해 팀의 방향성을 '롱볼'로 잡았다. 9위에 머문 지난해에도 10개 구단 평균(136개)보다 많은 143개의 홈런을 터뜨렸다.

신세계 이마트는 창단 첫해, '대포군단'의 위용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크다. 신세계 이마트는 장타력을 겸비한 내야수 최주환을 영입한 데 이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를 호령했던 추신수까지 데려오면서 장타력 극대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신세계 이마트의 타선은 무시무시할 정도다. 김원형 신세계 이마트 초대 감독은 최근 추신수 활용 안에 대해 "일단 2번 타자 외야수로 쓸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시즌 신세계 이마트의 타순은 1번 최지훈(중견수)-2번 추신수(좌익수)-3번 최정(3루수)-4번 제이미 로맥(1루수)-5번 최주환-6번 한유섬(개명 전 한동민·우익수)이 예상된다. 2번부터 6번까지는 모두 한 시즌 20홈런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 30홈런 이상씩도 가능하다.

추신수는 2017시즌부터 2019시즌까지 3년 연속 MLB에서 한 시즌 20홈런 이상씩 날렸다. 60경기 단축 시즌을 치른 지난해엔 33경기에서 5홈런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적지 않은 나이지만, 최근 MLB에서 4년 연속 장타율 4할 이상을 기록할 만큼 수준급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선 추신수가 합류한 신세계 이마트 구단이 2017년 SK가 기록한 한 시즌 KBO리그 팀 최다 홈런 기록(234개)을 깰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2017년 SK는 최정이 46홈런, 로맥이 31홈런을 기록했고, 한유섬이 29개, 김동엽(현 삼성 라이온즈)이 22개의 대포를 날렸다. 30홈런 이상 기록한 선수는 2명, 20홈런 이상 기록한 이는 총 4명이었다.

연합뉴스

## 류현진은 역시 류현진

**스프링어·텔레스 등 상대 라이브 피칭**
**몬토요 감독 "구석구석 잘 공략" 칭찬**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4)이 스프링캠프 훈련에서 라이브 피칭(타자를 세워두고 실전처럼 던지는 것)을 소화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렸다.

류현진은 2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에서 같은 팀 동료들을 상대로 공을 던졌다.

캐나다매체 스포츠넷은 "류현진은 알렉 마노아와 배터리를 이뤘고, 보 비셋, 마커스 시미언, 라우디 텔레스, 조지 스프링어와 상대했다"고 전했다.

류현진과 라이브 피칭에서 만난 스프링어는 토론토가 올 시즌을 앞두고 구단 역대 최고 연봉액인 6년간 1억5000만 달러(약 1658억 원)에 영입한 거포다.

찰리 몬토요 감독은 류현진의 라이브 피칭을 직접 살펴본 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몬토요 감독은 "류현진은 역시 류현진"이라며 "자기 공을 구석으로 잘 던졌다"고 말했다.

라이브 피칭은 실전 경기 등판 전에 소화하는 마지막 훈련 단계다. 류현진은 비시즌 기간 몸 상태를 끌어올린 뒤 불펜 피칭에 이어 라이브 피칭에서도 좋은 공을 뿌리며 기대감을 키웠다.

토론토는 29일 뉴욕 양키스전을 시작으로 시범 경기 일정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 메시는 역시 메시

**엘체 상대 17·18호 멀티 골 폭발**
**수아레스 제치고 득점 단독 선두**

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의 '골잡이' 리오넬 메시가 멀티 골을 터뜨리며 '옛 동료' 루이스 수아레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따돌리고 득점 부문 단독 선두로 나섰다.

메시는 25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노우에서 열린 엘체와의 2020-2021 프리메라리가 1라운드 순연 경기에서 혼자 2골을 넣어 바르셀로나의 3-0 대승을 이끌었다.

바르셀로나는 강등권인 19위의 엘체를 상대로 3골을 몰아쳤고, 그중 2골을 메시가 책임졌다. 전반을 득점 없이 마친 바르셀로나는 후반 3분 만에 메시의 결승 골로 승기를 잡았다. 메시는 마르틴 브레이스웨이트의 감각적인 오른발 힐패스를 잡아 골 지역 정면에서 몸싸움을 이겨내고 왼발슛으로 득점포를 가동했다. 메시의 리그 17호 골이었다.

한 골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메시는 후반 23분 프렝키 더용이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내준 패스를 잡아 골 지역 정면에서 골키퍼 키를 살짝 넘기는 왼발 슛으로 리그 18호 골을 꽂았다. 슛하는 순간 수비수 5명이 에워쌌지만 소용이 없었다.

메시는 후반 28분 조르디 알바가 터트린 쐐기 골의 출발점 역할도 맡았다. 메시가 페널티 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올린 크로스를 브레이스웨이트가 골 지역 왼쪽에서 헤딩으로 떨어뜨리자 알바가 골 지역 정면에서 왼발 시저스킥으로 골그물을 흔들었다.

이날 터진 바르셀로나의 3골에 모두 관여한 메시는 시즌 17·18호 골을 잇따라 기록해 수아레스(16골)를 제치고 라리가 득점 부문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3-0 승리를 따낸 바르셀로나(승점 50)는 세비야(승점 48)를 4위로 끌어내리고 3위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환상 오버헤드킥** 토트넘의 델리 알리(가운데·25)가 2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32강 2차전 토트넘 홋스퍼 대 볼프스베르거의 경기에서 오버헤드킥으로 선제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이날 알리는 1골 2도움을 기록해 팀의 4-0 승리에 앞장섰다. 이로써 토트넘은 16강에 올랐다. 연합뉴스